



부활 제3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부활 체험과 부활의 증인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그 리스도께서는 수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고 생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며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들은 눈이 열려 스승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인 몸이시다. 또한 살과 뼈를 가지신 분이시다.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받아서 잡수셨다. 주 예수님의 발현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은 무서워 하였고 두려워하였다. 또한 당황하기도 하였고 의심하고 불신하였으며 경이로움에 놀라워하였다. 하지만 부활하신 분의 자기 알림을 통하여 제자들은 그 마음이 사로잡히고 열리게 되었으며 점점 부활의 사건 속으로, 부활하신 분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현재의 신자들인 우리는 부활 사건 속으로 끌려 들어간 증인들의 말을 통하여 부활의 사건과 만나게 된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체험하게 된다. 성체성사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서는 친히 우리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친히 설명해 주신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부여하신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나셨다.”는 사실과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명하신다. 이 모든 일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영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빵을 모시는 일과 선교의 사명에 힘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는 헛됩니다.”



고태경 율리아노 신부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장



제 1 독 서 사도 2,14,22L-33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 2 독 서 1베도 1,17-21
복 음 루카 24,13-35

주일 진레



사랑이 만드는 세상 박완서와 법정 스님의 메시지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답을 짧은 수필 두 편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

박완서는 일상의 삶의 모습을 많은 소설로 그려낸 작가이다. 저명한 소설가인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앙인으로, 일상의 단상을 다수의 글로 남기기도 하였다. 『옹고도 아름다운 당신』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어느 가을에서 봄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깊은 산골짜기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곳에서 작가는 겨울이 지나 봄이 되도록 여전히 메마른 잎을 달고 있는 밤나무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안개인지 이슬비인지 습기로 천지가 눅눅한 어느 봄날, 난데없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밤나무들은 순식간에 잎을 떨군다.

이제 잎들의 운명은 나무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하게 되었다. 작가의 말대로 봄바람에 어이없게도 한순간 떨어져내린 그 잎새들에게 “옹트는 새싹은 원수 같았을지도” 모른다. 삶의 끝과 시작이 만나는 순간, 떠나는 자에게 새 생명은 결코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남편과 사별하고 다음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아들의 죽음까지 경험한 작가에게도 ‘새 생명’의 모습이 경이롭지만은 않았으리라. 그러나 작가는 말한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원수를 위해서 양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섭리 앞에 인간이라고 해서 가랑잎보다 나은 것이 없다.

떨어진 가랑잎이 거름이 되어 새싹을 키우듯이, 인간도 새 세대의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그 가장 소중한 양분은 미움이나 시샘이 아니라 ‘사랑’이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게 만든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작가는 “하느님, 당신은 옹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말한다.

법정 스님의 「설해묵」도 이와 다르지 않다.

깊은 산속, 모진 바람에도 꺾여없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겨울철이면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하얀 눈에 꺾이고 만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에 넘어지는, 온 산에 울리는 나무 꺾이는 메아리에 스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자비’의 깊은 의미 때문이다.

그의 스승인 노승에게 어느 해저문 날, 지인의 망나니 아들 하나가 찾아온다.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노승은 저녁을 지어 먹이고,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더운 물을 떠다 주었다. 한바탕 혼계를 예상하던 아이는 노승의 말없는 시중에 주루룩 눈물을 흘린다. 이 일화를 인용하면서 법정 스님 역시 말한다.

길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게 만든 것도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스하게 내리쬘던 햇살이 아니었던가.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도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인 것을...

눈의 부드러움이 억센 소나무 가지를 꺾고, 노승의 자비가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듯 이 세상에 정녕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이다. 그것이 얽힌 실타래를 풀고, 너와 나를 화해하게 만든다.

짧은 수필 두 편이지만, 우리는 알 것만 같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 따뜻함이 세상의 추위를 녹이고 조약돌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산마다, 들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사는 구석진 곳곳마다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봄이다. 맑은 봄향기처럼 세상에 사랑이 가득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산으로 간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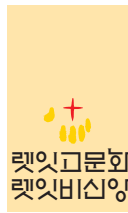
김정권 시몬 수필가/가톨릭 문인회

지난해 6월 한국갤럽이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내놓았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이란 주제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의외였다. 놀랍게도 지상파 3사를 제치고 종편인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가 1등을 하였다. 깊은 산중이나 외딴 무인도 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일상에서 탈피하고 싶은 욕구를 지닌 현대인들의 선호도가 꽤 높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녕 자연이 좋아서라거나 치유를 목적으로 산이나 바다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내면의 상처를 입었거나 기막힌 사연들이 있어 자연의 품에 안기어 은수자처럼 사는 분들이 더 많았다.

21세기 초현대 문명사회에서 전기·전화·전파 그리고 에너지원 없이 종교수행자도 아닌데 산중이나 무인도에 홀로 산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더더구나 인적이 끊긴 곳에서 야생 동물들과 외부 침입자들로부터의 적절한 보호 장치도 없이 고고하게 살아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다. 어쩌다 방송을 볼 때면 나는 주제넘게 그 프로그램을 염려하고 있었다. 저러한 사연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발굴을 하며 과연 그런 대상이 지속적으로 있기라도 하겠는가? 라고. 그러나 나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였다. 2012년 8월부터 7년이 넘도록 여전히 절찬리에 방송되고 있으니 말이다.

개그맨 기질로 많이 알려진 장경동 목사가 설교에서 최근 미국 갔다 온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였다. “어느 날 텍사스에 있는 아주 큰 미식축구장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 근데 그 축구장이 돔구장이어서 둥근 지붕으로 천장을 덮어 놓았는데, 한 가운데 조그만 구멍이 뚫려있었다. 궁금한 것을 절대 참지 못하는 성미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더니 미국인들이 미친 듯이 열광하는 미식축구를 하느님도 보고 싶으시리라 생각하여 설계자가 하느님 보시라고 구멍을 내 놓았다고 한다.” 장 목사는 깜짝 놀라 “미국인들이 괜히 잘사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독백을 하며 이렇게 축구장 하나를 지어도 하느님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였다고 하니 더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미국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느님 주도하에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라도 이웃사랑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관심받아야 되고 보호되어야 할 사람들을 깊은 산중으로 외딴섬으로 내모는 이런 행태는 막을 수 있으리라.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에 부활을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영화, 부활 Risen. 2016

로마인이군요? 그거 호민관 반자인가요?

넌 나간 얼굴로 광야를 건너다 발견한 집에 들어가 음식을 청하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호민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로마제국의 보병군 지휘관인 호민관 클라비우스가 그려갑니다.

그가 하는 일은, 로마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기를 드는 이들을 제압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그는 반란의 선봉장인 바라바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명을 따라, 그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뒤처리를 합니다.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에 경비병을 세웁니다. 빈무덤 사건 이후에는 사태의 종결을 위해 예수의 시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죽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자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온통 뒤집어 놓았고, 그가 겪은 이 모순이 진짜인지, 산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갈릴래아로 향하는 제자들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분과 재회합니다.

무엇을 찾느냐, 클라비우스? 확신? 평화?

그는 이제 확신이 없습니다. 무엇이 평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없는 일상? A day without death?

비로소, 그의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가 소망하던 그 일상입니다.

매일매일이 죽음의 나날이었습니다. 호민관 반지가 상징하듯, 그것이 그의 일이었고 힘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힘을 위해 죽음을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야심찬 군인이었으며 확신을 가지고 성공의 길을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은 얼굴, 명과 피투성이 몸뚱이를 이끌고, 잠 못 이루는 날들을 지낼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부활하신 분을 보았는가

그의 시선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가득한 세상 나라를 봅니다. 그가 보는 나라는 죄의 나라이며 힘이 곧 법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짓밟고 죽여야 합니다. 모두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가 직접 확인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는 패배자이며 그 죽음 뒤에 다른 무엇이 더 있을 수 없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사라진 그 죽은 자를 찾지만, “찾을 수 없는 걸 찾고 있군요. 틀린 걸 찾는 거예요.”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하느님의 영역에 충만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을 그런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은 또 다른 나라를 향합니다.

그분이 살아났다면, 당신을 형제로 받아주실 거요. 당신 손에 죽었지만.

그분의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귀가 밝아서 목소린 잘 구분해요. 그분은 날 사랑했어요.

그분은 여기 계세요. 마음을 열고 봐요.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의 확신도, 눈먼 노파의 증언과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까지도, 호민관에겐 여전히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선부른 판단을 자제합니다. 돈을 받아먹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는 경비병들의 말도 그냥 믿지 않습니다.

클라비우스는 제국의 시민과 군인으로서, 그 사회가 제시한 삶의 길을 따랐습니다. 제국은 죽음을 쌓아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는 죽음을 일하지만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내게 메시아를 보여줘. 살아있든, 죽었든.

보이는 것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들리지만, 보이는 너머를 볼 눈과 들리는 너머를 들을 귀가 그에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원하는가

그의 태도에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는 힘을 지향합니다. 로마의 수많은 신들 중 전쟁의 신 마르스를 숭배합니다. 힘을 가져야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삶의 평화를 지향합니다. 단지 그는 그 평화를 이루는 길로써 군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력을 쓰는 군인이면서도 연민의 정이 있고 피심문자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가봐. 강압적인 심문은 최대한 미뤄두지.

그가 살아났다는 소문이나 그만 퍼트려.

돌팔매형에 처할까요? / 가두든가... 그냥... 내보내. 보내줘. 정상이 아냐.

바라빠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다른 의미의 메시아였습니다. 그의 방식은 로마의 무력에 무력武力으로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는 무력無力으로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메시아, 죽음을 만드는 메시아가 있고, 힘을 베푸는 메시아, 생명을 만드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마태 27:17

나는 누구를 선택하는가, 그 답에, 내가 부활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드러납니다.

예수의 십자가 시신을 처리하고 온 클라비우스는 총독관저 목욕탕에서 빌라도를 만납니다.

자네, 야심이 크잖나. 어디까지 가고 싶나? / 로마요. / 그 뒤엔? / 지위와 힘을 가져야죠. / 그걸로 얻는 건? / 부와 좋은 가정이죠. 나중엔 시골에 집도 짓고. / 그러면 뭐가 남지? / 고통에서의 해방. 죽음이 없는 일상 A day without death, 평화. / 결국 목표는 평화다? 다른 길은 없을까?

그는 이미, 죽음이 없는 일상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힘입음을 토대로 죽음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 힘벗음과 생명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겪은 일을 풀어낸 그는, 반지를 빼 내려놓습니다.

식사 값일세.

호민관님, 그 일을 정말 믿으세요?

이건 믿지. 이젠 내가 절대 예전과 같을 순 없다는 거.

부활을 거부하던 그가, 부활했습니다.